

2014 부활

“낙담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세상에 큰 자비를 아낌없이 주시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보러 오십시오.”
(비잔틴 전례 중에서)

사랑하는 수녀님들께,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기쁨으로 맞아들입시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자비를 주시는 목자의 연민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우리 자신을 놓아둡시다.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부터 새신된 부활을 거행합시다.

기쁜 부활되시길 바랍니다!

Sr Maria Finocchi
총원장과 총통솔 드림

P. 마르코 루프닉,
선한목자에수수녀회 총본부 성당의 등불과 감실 로마 - Via della Pisana, 419-421